

“손흥민, 아자디 ‘지옥의 문’ 뚫어라”

벤투호, 내일 월드컵 최종 예선

사상 첫 이란 원정 승리 도전

아자디 스타디움 역대 전적 2무 5패

이기면 조 1위·지면 ‘가시밭길’

‘난공불락의 성 아자디 스타디움을 뚫어라’ 벤투호가 한국 축구 사상 첫 이란 원정 승리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2일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4차전을 치른다.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22위에 올라 있고, 한국은 A조 소속 팀 중 이란 다음으로 높은 36위에 자리해 있다. 한국은 이란에 9승 9무 13패로 화려한 열세에 있다. 특히 이란 원정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는 최근 3연패를 포함해 2무 5패를 기록 중이다. 가장 최근에 두 팀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맞대결한 것은 2016년 10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다. 이 경기에서도 한국은 사르다르 아즈문(제니트)에게 전반 25분 결승골을 얻어맞고 0-1로 졌다. 이번 최종예선에서 이란은 3전 전승으로 1위(승점 9)에 올라 있으며, 한국은 2승 1무로 2위(승점 7)에 있다. 벤투호는 이번 맞대결에서 승전가를 부른다면 선두로 올라서 더 안전하게 최종예선 남은 일정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진다면 이란과 격차가 승점 5 차로 벌어진다. 이란이 선두를 굳히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3위 그룹’과 치열한 2위 싸움을 해야 한다. 각 조 2위까지는 본선에 직행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2일 이란과 결전을 치를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 8만석 규모의 이 경기장에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 관중 수가 큰폭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커 한국이 홈팀의 일방적 응원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고 3위는 살 떨리는 플레이오프를 펼쳐야 카타르에 갈 수 있다. 최종예선 남은 일정이 ‘꽃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가시밭길’이 될 것인지가 이란전 결과에 달린 셈이다. 이란은 예상 밖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시리아, 전통의 강호 UAE를 1-0으로 꺾었고, 국가 간 관계가 안 좋아 늘 부담스러운 승부를 펼쳐온 상대인 이라크도 3-0으로 완파했다. 체격을 앞세운 단단한 수비와 직선적인 공격 전개 등 태극전사들이 결구리워하는 이란 특유의 축구 색깔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유럽파 공격진’의 무게감에서도 이란은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이란의 메시’로 불리는 아즈문(6골 1도움), 알리레자 자한바흐시(3골 2도움-페예노르트), 메흐디 타레미(5골 1도움-포르투) 등 이란의 공격 삼각편대가 소속팀에서 기록한 공격포인트는 총 14골 4도움이다. 한국이 자랑하는 손흥민(3골 2도움-토트넘), 황희찬(3골 1도움-울버햄프턴), 황희조(3골 1도움-이상 소속팀 기록-보르도)는

모두 9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란 리그 소속 선수 중에서도 위협적인 선수가 적잖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벤투호는 바히드 아미리(페르세폴리스)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미리는 과거 한국을 상대로 몇 차례 득점했던 2선 공격수 마수드 쇼자에이의 후계자라 할 만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벤투호는 일단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먼저 수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가 오면 더 정교하게 공격 전개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리아전에서 후반 44분 극적인 결승골이자 자신의 2년 만의 A매치 필드골을 터뜨리며 득점포를 탐근 손흥민의 발끝에 시선이 쏠린다. 시리아전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려버렸으나, 움직임만큼은 좋았던 황희찬의 ‘명에 회복 골’도 기대해 볼 만하다. 황희찬은 A매치 6골 중 3골을 중동 팀을 상대로 쏘았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3차전 대한민국 대 시리아의 경기. 손흥민이 골을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서울이랜드에 1-0 승 준플레이오프 진출 9부 능선 넘었다

전남드래곤즈가 준플레이오프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2021 K리그2 33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3경기를 남겨 놓은 가운데 4위 전남은 승점 49점(12승 13무 8패)을 만들면서 5위 부산아이파크(승점 41·11승 8무 14패)를 8점 차로 밀어냈다. 이와 함께 전남은 다음 라운드 부산과의 맞대결에서 비기지만 해도 부산의 4강 가능성을

날려버리게 된다. 올 시즌 마지막 대결에 나선 두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3득점으로 2무 2패에 그쳤던 전남이 이날도 슈팅 수에서 서울이랜드에 밀리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공격이 뜻대로 전개되지 않자 전경준 감독이 전반 32분 사무엘을 발로텔리로 교체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후반 22분에는 알렉스를 대신 이종호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다.

후반 몇 차례 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한 전남이 후반 42분 기회를 얻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경합을 벌이던 최호정이 서울이랜드 황태현에 견어차였다. 비디오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이종호가 키커로 나섰다. 지난 안양 원정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골을 기록했던 이종호가 이번에도 침착하게 상대 골대를 가르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전남은 남은 시간을 잘 지키면서 5경기 만에 승리를 만들었다. 전남에 이어 5위에 위치했던 부산은 부천FC에 0-1로 지면서 4강 싸움 추가 전남으로 기울게 됐다. 남은 3경기에서 전남이 전패하고, 부산이 전승해야 두 팀의 순위가 바뀐다. 전남은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오는 17일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승리 또는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격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기록은 계속된다

부상으로 올 시즌 90경기 출전하고도
4월 2000안타·7월 900 볼넷
8월 최연소 3500루타 기록
9월 14년 연속 10홈런·10월 1100득점



부상 때문에 ‘꾸준함’이라는 대명사가 흔들렸지만, 최형우의 기록은 계속된다.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최형우는 시즌 초반 망막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7년 KIA 이적 후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최형우지만 지난 5월 5일 엔트리에서 처음 말소됐다. 5월 31일 1군으로 복귀했지만 6월 15일 다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최형우의 2021 시즌이 잠시 멈췄다. 최형우는 보름 동안 쉬었다가 6월 30일 1군으로 돌아왔다. 최형우는 두 차례 엔트리에서 빠지는 바람에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경기에 출장하고 있다. 10일 더블헤더 1차전에 3번 타자로 선발 출장하면서 올 시즌

90번째 경기에 나섰다. 남은 경기에 모두 출전한다고 해도 올 시즌 경기 수는 109경기에 그치게 된다. 이적 첫해인 2017년 142경기에 나온 최형우는 이후 143, 136, 140경기에 나와 팀 타선을 지켰다. 부상에 신음하면서 올 시즌 성적도 가장 좋지 않다. 삼성 시절인 2013년 0.305을 시작으로 지난해 0.354을 찍으면서 8년 연속 ‘3할 타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올 시즌 90번째 경기까지 타율은 0.234에 그치고 있다. 타점도 49점에 머물고 있다. 강렬함은 떨어졌지만 올 시즌에도 최형우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최형우는 10일 한화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1100득점을 채웠다. 5회 3번째 타석에서 최형우는 2루수의 포구 실책이 나온 사이 2루까지 향했다. 그리고 류지혁의 중전안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KBO리그 11번째 1100득점 주인공이 됐다. 이 득점으로 3-1을 만든 KIA는 그대로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를 거뒀다. 부상으로 시달리면서도 최형우는 올 시즌 KIA의 기록 일지에 가장 부지런히 이름을 올린 선수다. 최형우는 4월 20일 잠실 LG전에서 2000안타 주인공이 됐다. KBO리그 12번째 기록. 또 1722경기 만에 2000안타를 만들면서 2번째 최소경기 기록도 동시에 작성했다. 7월 7일 대전 한화전에서 900번째 볼넷(통산 9번째)을 골라

낸 최형우는 이를 뒤인 7월 9일에는 안양에서 열린 KT전에서 1000개 4사구를 기록했다. 통산 10번째 기록이다. 8월 29일 문학 SSG전에서 다시 한번 최형우가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그는 이날 4회초 무사 1루에서 SSG 선발 오원석을 상대로 우전안타를 때리면서 3500루타 고지를 밟았다. 이승엽(4077), 양준혁(3879), 박용택(3672), 김태균(3557)에 이은 KBO리그 역대 5번째 기록이다. 또한 37세 8개월 13일이라는 최연소 3500루타 기록도 작성했다. 3546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최형우는 현재 김태균의 4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최형우는 9월 19일 잠실 LG전에서 팀의 자존심도 지켰다. 이날 첫 타석에서 임찬규를 상대로 투런포를 날리면서 시즌 10호포를 장식했다. 팀의 시즌 첫 10홈런 주인공이 된 최형우는 이와 함께 KBO리그 통산 14년 연속 10홈런을 완성했다. KBO리그 통산 7번째 기록이다. 남은 시즌 최형우는 팀 승리와 1000안타를 노리게 된다. 올 시즌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9차례 결정적인 순간 타점을 만들었다. 팀 내 결승타 1위다. 90번째 경기까지 기록한 안타는 76개. 중요한 순간 기록되는 적시타로 100안타를 채운다면 팀도 최형우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발롱도르 후보 30명에 손흥민 빠져

메시 ‘7회 수상’ 유력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 올해 시상식 후보에서 손흥민(29·토트넘)이 빠졌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은 9일(한국시간) 2021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다. 명단에 아시아 선수는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가운데 지난 시즌 공식전 22골 17도움을 올리며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대 득점·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도 2회 연속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시상식에서는 설기현 경남FC 감독, 박지성 전북 현대 여드브이저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3번째로 발롱도르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 시상식은 코로나19 탓에 열리지 않았고, 후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 케인은 올해 시상식 후보로 선정돼 대조를 이뤘다. 케인을 비롯해 필 포든, 라힘 스털링(이상 맨체스터 시티), 메이슨 마운트(첼시) 등 잉글랜드 선수 4명이 30인 후보에 포함됐다. 잉글랜드는 지난여름 진행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잉글랜드가 2번째로 많은 후보를 배출한 가운데 유로 2020 우승팀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5명을 후보 명단에 올렸다. 니콜라 바렐라(인터밀란), 레오나르도 보누치, 조르조 키엘리니(이상 유벤투스), 잔루이지 돈나룸바(파리생제르맹-PSG), 조르지뉴(첼시) 등 유로 우승 주역들이 후보로 선정됐다. 발롱도르 최다 6회 수상자인 리오넬 메시(PSG), 그의 영원한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30인에 포함됐다. ‘차세대 슈퍼스타’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이상 PSG),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뮌헨)도 빠지지 않았다. 올해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는 메시가 첫손에 꼽힌다. 메시는 지난여름 2021 코파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로써 메시는 그토록 바라던 생애 첫 메이저 국제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대표팀에서는 유로 우승을, 소속팀에서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정상에 오른 미드필더 조르지뉴도 올해만큼은 메시 못지않게 강력한 후보다. 조르지뉴는 2020-2021시즌 UEFA 올해의 선수 상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